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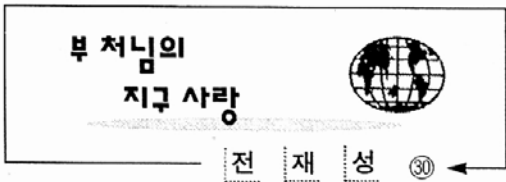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세기경(世紀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일찍이 한 때에 바람의 요소의 대신(大神)이 있어 나쁜 견해를 내어 생각하여 말했다. '바람의 요소안에는 땅, 물, 불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신이 있는 곳에 나아가 말했다. 대신이여, 그대가 마음에 참으로 '바람의 요소안에는 땅, 물, 불이 없다' 라는 나쁜 견해를 품었는가?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대신이여, 그대는 이제 그와같은 나쁜 견해를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바람의 요소안에는 실제로 땅, 물, 불이 수반하고 있으며, 다만 그 가운

그러나 인간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그것이 전 지구적 땅, 물, 불, 바람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불과 이십여년도 채 되지 못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멕시코시티는 원래 평지보다

서는 매년 대기오염관련 사망자가 10만명을 넘고 시민들은 매일 담배 2갑을 피우는 것과 같은 흡연효과와 오염된 대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
 84년 손동연교수팀에 의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형성되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 하나만의 농도로 볼 때,



◇공기는 사람이 마시지 않으면 실수 없을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가 오염되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대기오염

데 바람의 요소가 더욱 맑을 뿐이다. 그러한 인연으로 바람의 요소라고 불리울 뿐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바람 요소의 대신(大神)이 그와같은 생각을 낸 줄 알고 그 나쁜 견해를 끊어서 기쁨이 생기게 했다."

바람의 생태계는 모든 생태계처럼 모든 다른 생태계를 그 가운데 함축하고 있고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가 오염되면 대기오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람의 대신(大神)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주고 바람의 생태계를 기쁘게 했다.

생태계 위협·인접국까지 피해 줘

멕시코시티 가장 심각...매년 10만여명 사망
서울 2위...중국 황사현상 한국에 영향 미쳐

30%나 산소가 부족한 해발 2200m의 고지대인 본지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7천대 이상의 디젤버스를 포함 3백만대 이상의 차량과 멕시코 공장의 50%인 13만개의 공장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과 1천7백만 인구의 생활에 너의 소비로 인해 엄청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시티에

서울의 대기오염은 멕시코시티의 절반정도로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도 하루 담배 한 갑의 흡연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다. 이것은 세계 제 2위의 대기오염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980년 이래 자유환경대체책이나 청

정연료 사용의 의무화·지역난방시스템의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강화와 같은 환경보전정책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료소비량의 증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인 대기오염의 감소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바람과 산성비

에 의해 인근 지방이나 인접국가로 전이된다. 우리나라에 매년 불어오는 불어닥치는 황사현상은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대기오염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좋은 실례이다. 최근에 중국의 개발붐을 타고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산성비는 우리나라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날이 머지 않았다.
 특히 대기오염은 수분과 만나 구름으로 오염될 경우에 산성비에 부딪쳐 그곳에 산성비를 뿌림으로 실산유독과 산성수에 이르기까지 불모화할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는 지하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합장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행해져 왔다. 가장 먼저 성립된 경전인 (아함경) 곳곳에 "합장한 채 이렇게 여주었다"란 표현이 나타난다.

스님에게는 물론 모르는 사람과도 첫 인사를 나눌 때면 반드시 합장으로 인사하는 허보리수보살은 "회암경에 나오는 '지타일시불도(自他一時成佛道)'란 구절이 마음에 들어, 인사를 나누면서 '성불하세요'라고 발원한다"고 말했다.

〈잡아함경〉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온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계셨다. 부처님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걸식하다가, 어떤 비구가 방만한 마음과 흐트러진 자세로 걸식하고 있었다. 그 비구가 멀리서 부처님을 뵈고는 곧 단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은 걸식을 마치고 녹야원에 돌아와 이렇게 물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비구는 방만한 마음과 흐트러진 자세로 걸식하다가 나를 보더니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비구답게 행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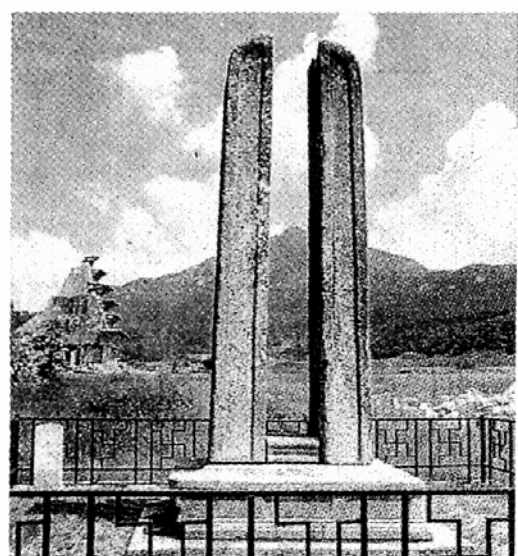


상대방 향한 믿음·존경의 표시
몸과 마음 바로잡는 신행의 첫걸음

누구인가?
 그러나 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한 뒤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바로 저이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 비구에게 야단을 치시는커녕 오히려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다.
 "착하다, 비구여. 너는 나를 보고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로 할 수 있었구나. 비구여, 그것은 바른 법이니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구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비구나 우바세 우바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그 마음 속에 3보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바로 함에 익숙해지면 작게는 다른 이의 존경을 받게 되는 일로부터 크게는 알란을 얻게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앞에 모으고 허리숙여 예를 표하는 '합장'은 불교인의 독특한 인사법이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상대방에게 믿음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니 합장 이상의 인사법이 없을 것이다.

이 자각하고 용맹정진에 발을 내디뎌보자. (02)582-1080
새벽사원 74탑의 장관
실상선원 태국성지순례
 태국은 전체인구의 90% 이상이 불교신자인 불교의 나라로 많은 불교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실상선원(주지 정현스님)은 불교국가의 생활상을 둘러보고 불교의 이념을 실천해 불국토의 세계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신행수첩



◇익산에는 목탑양식의 미륵사지석탑 외에도 고도리 석불입상, 태봉사 삼존석불등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신재해 있다. 사진은 보물 제236호 미륵사지당간지주.

미륵성지를 찾아서
 터사랑 11-12월 국토순례
 미륵사상의 발자취를 더듬어 고승들의 숨결과 역사의 향기를 느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기적으로 국토순례를 떠나는 터사랑(회장 전숙희)은 오는 11·12월 이틀간에 걸쳐 제 19회 국토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는 '미륵성지를 찾

아서'라는 주제로 김제 금산사, 익산 미륵사지, 논산 관촉사등을 둘러보게 된다.
 신라 해공왕 2년 진표유사가 미륵불의 수기를 받고 중창했다는 금산사는 무악산의 연봉이 사방으로 둘러싼 가운데 위치해 주변경관이 아름답다. 특히 미륵전, 당간지주, 석련대, 석종루 국보 문화재들이 수많은 단풍나무가 채색해 어우러지는 풍경은 일대장관이다.
 순례단의 답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익산 미륵사지, 논산 관촉사·개태사로 이어진다. 이렇게 미륵성지를 답사하다보면 마음까지 숙연해져 세 상사를 모두 잊게된다. (02)725-1284

정혜결사 유명한 거조암 대승불자회 구도법회
 대구분지의 북부를 병풍처럼 가리고 있는 팔공산에는 드넓은 수많은 봉우리들과 함께 많은 사찰과 암자가 자리해 있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도도량 갖바위와 팔공산 동쪽기슭에 위치한 거조암도 그 중의 하나다.

조계사 대승불자회는 갖바위와 거조암을 찾아 11월 구도법회를 오는 18일 떠난다. 7세기경에 창건된 거조암은 고려 자눌이 송광사에 수선사를 세워 정혜결사를 이룩하기 위해 각 종파의 고승들을 맞아 몇해동안 정혜를 익혔던 사찰로 유명하다. 또한 거조암에는 국보 제14호로 지정된 영산전과 다수의 문화재가 전래하고 있어 산사를 둘러싼 가을단풍과 어우러져 그 고색창연함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02)736-4848

문화유적의 보고 선암사 부산불교교육원 기행단사
 현강항 5년에 도선이 창건했다는 조계산 선암사는 정유재란을 겪기 전까지만해도 셀 수 없이 많은 당우를 보유한 사찰로 유명하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이 불교유적지를 둘러보고 신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 이곳 선암사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대각국사진영과 삼층석탑, 승선교, 영산회상도, 오십삼불도, 칠성도등 소중한 유적이 즐비한 선암사는 불교문화의 진수를 맛보기에 모자람이 없다. 특히 지상에서의 실법장면과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는 정면은 그린 조선후기의 화엄경변상도는 정연한 질서와 공

안입는 옷 모아 환경사랑·이웃사랑

관음의집 '현웃은행 프로그램' 운영
 바리는 옷, 쓰레기도 잘 손질하면 알뜰자원이 된다. 자원봉사 보살행을 펼쳐가는 노인무료급식소 관음의집에서는 환경운동이 생생한 사랑 운동이라는 인식 아래 환경현웃은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간감을 느낄 수 있는 송광사 화엄경변상도와 더불어 18세기 후반기를 장식하는 보기 드문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행은 선암사를 둘러본 후 송광사에도 둘러 저녁에 불도 가질 예정이어서 가족과 함께 명찰을 둘러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접수마감은 7일까지, 출발은 부산불교교육원앞. (061)466-4080

수행은 성불의 씨앗 불교교육원 사상강좌

한 생각 돌이키면 불법이 세수하다 코만지지보다 쉽다고 했다.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키는 과정이 수행이다.
 중앙불교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오는 17일 오후6시 이계열법사(유마선원)를 초청, '수

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라는 주제로 불교사상강좌를 개최한다.
 스님들이 가부좌를 틀고앉아 화두를 푸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열불 기도 독경등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의 한 방편인 것이다. 이렇게 수행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 여러가지 수행방법들을 비유해서 조사스님들은 큰 성에 들어가는 문은 한가지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정법으로 수행을 할 경우 수행 그 자체가 성불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상강좌와 수행관도 천만가지의 수행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불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자신의 작은 수행 하나하나가 성불의 씨앗임을 깊이

원효스님의 중요. 김시습의 별찬이 수록된 범화경 한장본

현재 발간된 영인본과는 달리 각 품마다 대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연화경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상B/D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본서는 이미 발간되었던 범화경과는 다른 도광 10년, 170년전 필사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남을 것입니다.

첫째, 원효대사의 범화경 중요 序수록
 둘째, 淸寒子 김시습의 범화경 별찬·별찬서 수록